

[성명]

위기 극복과 발전의 명확한 청사진 제시해야

9월 1일 재단 이사회와 대학 구성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장 취임식이 거행됐다. 이미 두 달 전 총장은 임명되어 업무를 시작했지만, 노동조합은 인수·준비 단계가 없는 상황을 고려해 기대와 배려의 입장에서 신임 대학 집행부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현 총장의 취임은 최근 입학생 모집 실패와 수년간 지속된 부실한 경영, 리더십 불안으로 인한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구성원 전체가 모색하고 협력한 결과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막중한 사명을 짊어진 새 총장체제가 대학의 위기를 종식시키고 구성원의 안정적 근무 환경을 이끌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이제는 대학본부가 희망의 비전, 공동체의 재건 및 발전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법인 또한 대학의 위기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우리 영광학원은 30여 년 동안 대학 구성원 및 지역사회와 헌신적 연대와 성원으로 정상화된 특별한 모델이다. 법인은 4년 전 정규 이사진의 임명 승인에 각별한 감회와 기대를 표했던 대학 구성원들이 오늘의 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와 노력에 대해서 대학과 협력하여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사회와 구성원들로부터 대학의 실질적 관리운영의 주체로써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근년 들어 퇴직 및 이직 직원의 증가에 더하여 신규 직원의 미충원으로 인해 학사행정이 위축되고 있고, 이는 공동체의 열악한 현실과 비전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신임 총장과 법인은 대학의 위기 극복, 존속과 발전이 우수한 인력의 안정적 충원과 단련을 통해 능력을 발휘할 때에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본교와 학원의 역사에서 난관과 마주쳤을 때마다 항상 최일선에 섰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의 위기에도 함께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다시금 총장과 대학본부가 희망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구성원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공동체를 재건하고 발전을 견인하는 리더십을 세워 공생과 번영의 미래로 나아가기를 촉구한다.

2022. 9. 6.

제18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